

### KB, 내년 KPGA 투어 7억원 대회 창설 한국남자프로골프협회와 5월 대회 개최 협약

KB금융그룹이 내년 5월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대회를 창설한다.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양희부)와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21일 오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KPGA 코리아투어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까지 향후 2년간 대회 개최에 합의했다.

2006년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KB금융 스타렉스인심'을 개최하고 있는 KB금융그룹은 남자골프 대회의 새로운 도약과 남녀 골프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칭 'KB금융 챔피언스컵'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될 이 대회는 내년 5월 31일부터 6월 3일까지 나흘간 펼쳐질 예정이다. 우승상금 1억4000만원 등 총상금은 7억원 규모다.

KB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 경남 김해시 정산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항전인 '빌리언어드컵'을 한 차례 후원하며 남자골프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KPGA 양희부 회장은 "KB금융그룹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린다. 본 대회가 팬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각인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은 "10년 넘게 한국 여자골프 메이저대회를 개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본 대회가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실력 있는 남자 선수들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남자골프 대회의 붐을 일으켜 세계무대에서 멋진 활약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PGA는 2018년도 전체 KPGA 코리아투어 일정을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



## FA 미룬 이용규, 연봉 대폭 삭감...9억→4억

2017시즌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고도 권리 행사를 미룬 한화 이글스 외야수 이용규(32)가 내년 시즌에 대폭 삭감된 연봉을 받는다.

올 시즌 부상으로 활약 못해 권리행사 1년 미루기로 결심 "팀에 도움 되는 선수 될 것"

한화는 20일 "이용규와 4억원에 2018시즌 연봉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2013시즌을 마친 후 FA가 된 이용규는 계약기간 4년, 총액 67억원에 한화와 계약했다. 올해 연봉은 9억원이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한화에서 4년을 뒀던 이용규는 올 시즌을 마친 뒤 FA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올 시즌 부상으로 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이용규는 권리 행사를 1년 미루기로 결심했다.

올해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인 팔꿈치 부상을 안고 출전한 이용규는 상태가 악화돼 개막 엔트리에서 빠졌고, 5월 초에는 오른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해 재활에 매달려야 했다.

올해 1군에서 57경기 출전에 그친 이용규는 타율 0.263(179타수 47안타) 12타점 10도루 31득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거뒀다.

명예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은 이용규는 절반 이상 삭감된 연봉도 받아들였다.

이용규는 "내년은 개인과 우리 팀에게 매우 중요한 시즌이 될 것이다. 야구에만 집중하기 위해 일찍 계약을 마쳤다"며 "내년 시즌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돼 팀과 팬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 신태용호, 내년 3월 폴란드와 A매치 평가전

러시아월드컵 대비...세계랭킹 7위 강호



폴란드는 러시아월드컵 유럽 지역예선 E조에서 8승1무1패의 성적을 거둬 조 1위로 본선에 진출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대표적 선수다.

한국과 폴란드의 역대 A매치 상대전적은 1전1승으로 한국이 우위다. 2002 한일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만나 황선홍, 유상철의 연속 골로 2-0으로 승리했다.

지난 2011년 10월 조광래 감독 시절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친선경기를 치러 2-2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지만 FIFA가 허용한 교체 인원(6명) 초과로 인해 A매치 기록에서 제외됐다.

대표팀은 내년 1월 아랍에미리트(UAE) 전지훈련 기간에 2~3차례의 경기를 갖고, 3월 FIFA A매치 기간에 폴란드와 외에 한 경기를 더 치를 계획이다. 상대팀이 확정되는 대로 평가전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을 겨냥하고 있는 축구대표팀이 내년 3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7위 폴란드와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20일 "내년 3월 28일 폴란드와 폴란드에서 원정 친선경기를 갖기로 폴란드축구협회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기 시간은 한국시간으로 28일 오전 3시45분, 현지시간으로 27일 오후 8시45분이다. 개최도시와 경기장은 추후 결정된다.

협회는 "이번 경기는 내년 러시아월드컵 본선에서 독일 스웨덴을 상대하는 한국과, 역시 월드컵에서 같은 조에 속한 일본전에 대비해 스페인 파트너를 찾던 폴란드의 이해가 맞아 전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뉴스

### 서재응, KIA 타이거즈 코치 됐다

'나이스 가이' 서재응(40)이 KIA 타이거즈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다.

서재응은 지난 19일 KIA와 코치 계약을 맺었다. KIA는 아직 서재응 코치의 보직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투수력 강화를 위해 그를 불렀다.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은퇴한 서재응은 2년동안 해설위원으로 활동했다. KIA의 러브콜을 받은 서재응은 친정팀에서 지도자로 데뷔하게 됐다.

그는 광주일고를 졸업한 후 인하에 재학시절인 1988년 뉴욕 메츠에 입단했다. 정교한 제구력을 바탕으로 한 노련한 투수로 메이저 리그에서 6시즌 동안 활약했다. 통산 118경기에서 28승4패 평균

뉴스



자책점 4.00을 기록했다.

2008년 한국으로 돌아와 KIA에 입단. 8시즌 동안 164경기에 등판해 42승48패4홀드2세이브 평균자책점 4.30의 성적을 남겼다.

뉴스

### '오심' 프로배구 진병운·이광훈 심판, 무기한 출장정지 '중징계'

19일 한국전력 vs KB손해보험 경기서 심판판정 오류

한국배구연맹이 명백한 오심을 저지른 주심과 부심에 중징계를 내렸다.

한국배구연맹은 21일 오전 연맹 대회실에서 지난 19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경기에서 발생한 비디오 판독 및 심판판정 오류에 대한 긴급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는 경기 중 비디오 판독 규칙적용 잘못과 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경기 주심(진병운)과 부심(이광훈)에게 무기한 출장정지, 경기감독관(이창선)과 심판감독관(유명현)에게 무기한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오심은 3세트 20-20에서 나왔다. 양준식(KB손해보험)과 이재복(한국전력)이 네트 사이에서 접전을 펼쳤다. 이때 진병운 주심은 이재복의 캐치볼을 선언해 KB손해보험의 득점을 인정했다.

판정에 불복한 한국전력은 터치네트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판독 후 터치네트가 있었다며 한국전력의 득점이라고 번복했다.

이때 KB손해보험 권순찬 감독은 터치네트 전에 캐치볼 사인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원심이 맞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감독은 재차 강력하게 항의했다.

2세트에서 엘로카드를 받았던 권 감독은 두 번째 경고를 받아 1점을 더 내졌다.

20-22로 물린 KB손해보험은 3세트를 내졌다. 결국 세트스코어 1-3으로 패했다.

KB손해보험은 20일 KOVO를 방문해 재경기 요청, 관련자 중징계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경기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한국배구연맹은 상벌위원회 징계 결정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경기운영위원장(신춘삼)과 심판위원장(주동욱)에게는 관리의 책임을 물어 엄중 서면 경고 조치를 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 및 심판 운영 선진화 작업을 앞당겨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키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경기운영 미숙으로 인해 실망감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 팬 여러분과 모든 관계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뉴스

### 한국 축구, AFC 클럽대회 랭킹 2위...동아시아 1위

1위 UAE...중국-사우디-일본-카타르-이란 순

한국 축구가 아시아 클럽대회 랭킹에서 2위에 올랐다. 한중일이 중심인 동아시아에선 1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아시아축구연맹(AFC)이 발표한 AFC 클럽대회 랭킹에서 한국이 합계 87.48

뉴스

점을 획득해 전체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위는 95.94점의 아랍에미리트(UAE)다. 중국(86.671점), 사우디아라비아(84.269점), 일본(83.464점), 카타르(82.407점), 이란(71.851점)

뉴스

### 김지용 평창 선수단장 "금8·은4·동8, 종합 4위 달성 위하여"

"종합 4위 목표다."

대한체육회는 21일 낮 12시 국민체육회 5층에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김지용 대한민국 선수단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올림픽 대비 준비현황 및 다양한 취재 정보 제공을 통해 올림픽 붐업과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 단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의 지원에 만전을 기해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선수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

이어 "한국 선수단은 2010년 밴쿠버올림픽에서 역대 최고인 종합 5위의 성적을 올려 국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줬다. 평창올림픽은 1988 서울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이자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올림픽이다. 의미가 있는 대회인 만큼 평창올림픽에서 선수단 지원과 파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키 선수 출신인 김 단장은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부단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올해 1월 알파인 동계유니버시티

뉴스

아드에서 선수단 단장을 맡았다.

그는 "단장으로서 선수들이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스키 선수 출신의 경험과 동계 대회 단장을 지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단장으로서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했다. 그는 "현재 경기력으로 금메달 6개에 종합 10위 정도의 성적을 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를 기록해 종합 4위 정도를 달성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대회이니 선수들도 부담감을 덜 느낄 것 같고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잘 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



김지용 평창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장이 21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부를 밝히고 있다.

뉴스

홈페이지: www.j-honam.com

지역공동,미래창조,정통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42/222-5548